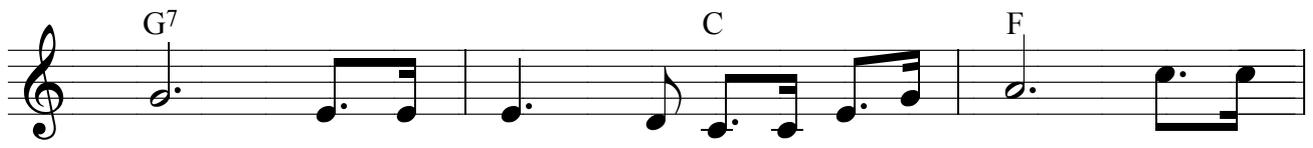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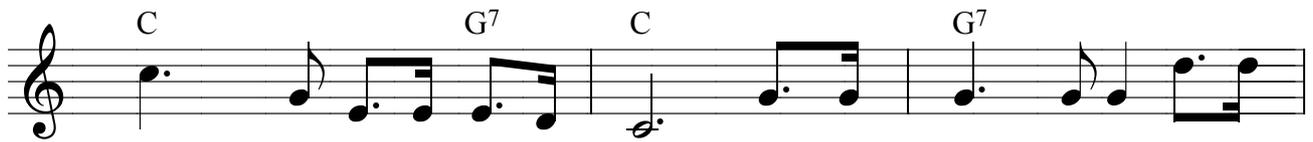
윤용섭 작사, 작곡



1.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
 2.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
 3.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걸다 지친 이 몸



이 탕자 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
 이 목자 잃은 어린양 처럼 갈 길
 이 무거운 짐 병든 마음을 모두



맘도 병들었다 오 온갖 죄와 허물 속
 몰라 헤매었다 오
 주께 말기였다 오



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
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 오라 부르실
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



에 눈물만 흘렀다 오
 때 눈물만 흘렀다 오
 날 눈물만 흘렀다 오